

직장레크레이션(4)

- 단계별 체크포인트 -

운영

기획에 따라서 준비된 활동을 홍보하고 참가자를 모으는 일과 함께 실제의 활동을 운영, 진행시켜 가는 일이다.

- ① 강제동원이나 명령에 의해서 참가자의 의사를 무시한 모집이 아니라, 흥미나 관심을 갖도록 하고 참가자가 자발적으로 참가하도록 홍보하여 모집한다.
- ② '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'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참가사원들에게 즐거움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맨이라는 자각
- ③ 담당자들만 전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중에서 지원자를 구성하도록 추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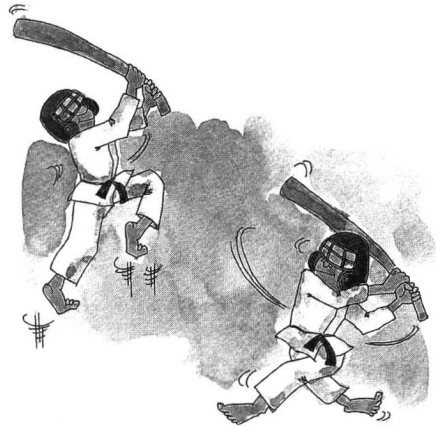
체육대회를 이용한 직장레크레이션

• 스포츠 칼싸움

칼싸움을 규칙화하여, 즐기는 것으로 칼모양의 장난감이나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를 여러 겹으로 하여 종이칼을 만들어 이용하며 어떻게 하든 상대의 칼을 구부러트리는 쪽이 승리한다. 1대1, 2대2, 3대3, 1대3, 2대5, 몇 명끼리라도 좋은 대결이 될 수 있다. 칼의 길이도 짧은 단도를 비롯하여 장검, 창, 두꺼운 칼

등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. 보호구는 안면보호구만 착용한다.

대결도 칼싸움 그 자체. 단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을 사용해도 좋으며, 상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덩굴어도 좋다.



직장에서 즐길 수 있는 직장레크레이션

• 한낮의 격투

서로 등을 맞대고 수건을 빼앗는 게임. 엉덩이 힘과 재빠름이 승부를 결정한다.

도전자 두 명을 뽑는다. 두 사람이 양다리를 벌리고 등을 맞대고 선다. 미리 선을 그어 두 사람이 서는 위치를 정한다. 두 사람 사이에 수건을 1장 놓고, 댄스뮤직으로 게임 시작. 두 사람은 발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음악에 맞

취서 춤을 춘다.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수건을 뺏는다. 엉덩이와 엉덩이가 부딪치기 때문에 미는 힘이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. 보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로 분위기를 띄워주자.



• 누구의 귀가 초능력?

그룹 대항으로 진행한다. 각 그룹의 대표자가 무대로 올라간다. 남은 멤버는 역시 한 명씩 대표자가 되어 질문을 한다. 사회자는 미리



준비해 둔 가수이름이나 텔런트, 배우 등의 이름을 써놓은 카드를 각 그룹의 질문자들에게 준다. 이름은 질문자마다 모두 다르게 만들고, 질문자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서 전원이 큰 목소리로 동시에 이름을 읽는다. 각 그룹 대표자는 그 이름들을 듣고 전원의 이름을 써넣는다. 정답이 많은 대표팀이 승리한다. 질문할 사람들의 이름은 연대, 성별, 장르 등을 다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.

• 말뚝잡기

1팀이 10명 정도. 전원이 일렬로 나란히 선다. 8명이 양손에 말뚝을 잡고, 바깥쪽 2명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나란히 선다.

‘하나, 둘, 셋’의 리듬으로 말뚝을 놓으면 동시에 옆 사람의 말뚝을 넘어뜨리지 않게 잡는다. 가장 왼쪽에 있는 사람은 반대쪽 끝자리에 가서 앉는다. 전원이 말뚝을 넘어지지 않게 몇 회를 움직이는가를 기록하여 도전한다. 제한 시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3회 정도로 도전.

